

서학개미 사로잡은 레딧·ETF... 해외주식 보관액 '역대급'

개미운동의 현주소

(下) 해외주식 직구 열풍

2분기 해외주식 보관액 75.4조
美 시장 결제비율 80.5% 차지
상반기 결제 1위 테슬라... 20.8조

올 상반기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직구 열풍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주식 보관금액의 경우 75조원에 달하는데, 밈주식(Meme Stock)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도 다양해졌다.

◆해외주식 보관금액, 올 20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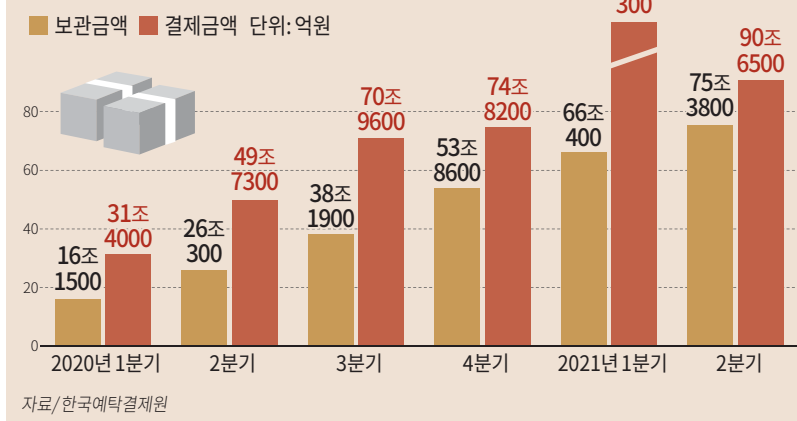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해외주식 보관금액은 75조3800만원(658억8000만달러)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53조8600억원(470억8000만달러)과 비교했을 때 20조원 넘게 늘어난 역대 최고치다.

2분기 해외주식 결제금액(매수 결제액+매도 결제액)의 경우 90조6500억원(792억3000만달러)을 기록했다. 직전분기(147조300억원) 대비 38%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는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에 1분기 해외주식 결제금액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2분기 국내 증시가 3300선을 넘기는 등 활황을 이어가자 해외 주식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해외주식 보관금액·결제금액 변화 추이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주식의 경우 미국 시장이 결제 규모의 80.5%를 차지했다.

◆밈주식, ETF...투자종목 다양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종목도 다양해졌다. 지난해 미국 대형 기술주가 결제 상위 종목을 차지했다면 올 상반기에는 밈주식과 고위험 고수익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들이 대거 등장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사랑은 여전했다. 올해에도 결제 금액 1위를 차지했는데, 지난 9일까지 테슬라의 결제 금액은 20조7800억원(181억7000만달러)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테슬라의 총 결제금액이 26조6400억원(232억9000만달러)인 점을 감안했을 때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 규모의 78%가량을 결제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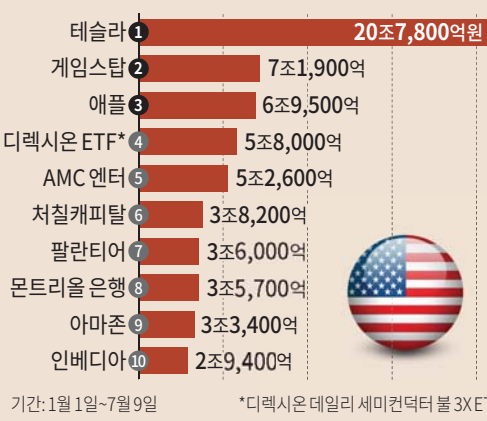
이어 결제 금액 상위 종목으로 게임스탑 7조1900억원(62억8400만달러), 애플 6조9500억원(60억7600만달러),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볼 3X(SOXL·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 5조8000억원(50억7300만달러), AMC 엔터테인먼트 5조2600억원(45억9900만달러), 처칠캐피탈 3조8200억원(33억3800만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제 금액 상위 2위, 5위를 각각 차지한 게임스탑과 AMC는 밈주식 또는 레딧주로 불린다. 밈주식이란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종목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레딧주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을 말한다. 공매도에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는데, 단기 차익을 노리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 투자자들이 많았다.

비교적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레버리지 ETF도 결제 금액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주식 결제금액 상위 10종목



4위로 집계된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X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배를 추종한다. TSMC,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의 반도체 기업이 해당 지수 구성에 포함돼 있다. 디램(D램) 가격 상승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장기화가 본격화되며, 관련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수의 수익률 3배를 추종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3배의 손실이 발생한다.

특수목적인수회사(스팩·SPAC)인 처칠캐피탈은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와의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결제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한다며 관련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한 대신증권 연구원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기업들의 2분기 주당순이익(EPS)이 전년 동기 대비

65.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기회복, 기업들의 낙관적인 실적 전망,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등으로 어닝 시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적 회복을 주도할 업종은 산업재, 경기소비재, 에너지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외화증권수탁 수수료 급증

해외주식 직구 열풍에 국내 증권사들의 외화증권 수탁수수료 수익도 크게 늘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증권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 외화증권 수탁으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2856억원으로 전년 동기(978억원)의 3배를 기록했다.

국내 증권사의 해외증권 매매수수료 수익 변화 추이는 ▲2020년 1분기 978억원 ▲2분기 1246억원 ▲3분기 1724억원 ▲4분기 1462억원 ▲2021년 1분기 2856억원 순이다. 해외증권 매매 수수료 수익이 분기 기준 2000억원이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사별로는 키움증권이 576억원으로 가장 많은 해외증권 매매 수수료를 벌었다.

이어 삼성증권 541억원, 미래에셋증권 530억원, 한국투자증권 285억원, NH투자증권 267억원, KB증권 228억원, 신한금융투자 15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38개 증권사 중 7개 증권사가 총 2579억원으로 전체 해외증권 수수료 수익의 90.3%를 차지한 셈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주력사업 손보는 정유업계... 석유화학 혁신 가속

SK이노 경질유 생산, 배터리 사업 진출 에쓰오일 복합석화시설 7조 투자 계획 GS칼텍스 복합분해설비 시범 가동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사업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주력 사업인 정유마저 석유화학업 등으로 변모하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지난해 코로나 여파가 시작하면서 정유 부문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경기가 침체하면서 공장 가동 등 석유 제품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정유4사는 모두 정유 부문에서 적자를 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분기 석유 사업에서 2조222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에쓰오일은 정유 부문서 1조7,041억원의 손실을 냈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도 각각 정유 사업에서 1조1829억원, 110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1분기에는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 입어 재고 관련 이익이 확대되며 흑자로 전환했다. 해당 분기 정유사별 정유 부문의 영업이익은 ▲SK이노베이션 4,160억원 ▲에쓰오일 3,420억원 ▲GS칼텍스 4,635억원 ▲현대오일뱅크 2,113억원 등이다.



에쓰오일 전사유 고도화시설(RUC).

하지만 이 같은 흑자는 시장 수요의 회복이 아닌 단기적인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정유사가 크게 수익을 제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유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BEP)을 넘기지 못한 이유기도 하다.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지난해 2월 둘째 주 이후 손익분기점을 넘긴 적이 없다. 통상 정유사의 손익분기점은 정제마진 4~5달러라고 본다.

최근 7월 둘째 주 기준 정제마진이 배럴당 2.9달러를 나타내며 약 8주만에 다시 반등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적자 수준인 것은 마찬가지다. 석유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공장을 가동하지만 외려 정유 부문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주력 사업의 부진 속에서 정유사들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업 등을 새

먹거리로 택했다. 정유업계가 올해 1분기 호실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배경이다. SK이노베이션은 VRDS(감압 전사유 탈황설비)를 지난해 4월부터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VRDS는 감압 전사유를 원료로 수소첨가 탈황 반응을 일으켜 경질유 및 저유황유를 생산하는 설비다.

SK이노베이션은 석유화학업뿐만 아니라 2차전지(배터리)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친환경 기조가 강화하면서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2차전지는 그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국가전략산업으로 꼽히기도 했다.

에쓰오일은 복합 석유화학 시설(RUC&ODC) 프로젝트에 이어 2단계 프로젝트(SC&D)도 추진 중이다. 이른바 '샤힌 프로젝트'로 불리는 2단계 프로젝트를 위해 에쓰오일은 약 7조 원을 투자했다. 다만 최종 투자는 내년 하반기에 결정될 방침이다. 이 경우 에쓰오일은 연간 180만 톤의 에틸렌을 생산하게 된다.

GS칼텍스는 총 2조7천억 원을 들여 건설한 복합분해설비(MFC) 생산 시설을 최근 시범 가동에 들어갔다. 해당 시설은 에틸렌 70만 톤과 폴리에틸렌 5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다. 또, 현대오일뱅크는 계열사 현대케미칼을 통해 복합 석유화학 공장(HPC)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며 올 하반기 내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LED 전조등·신호등 정보 정확하게 인식

>> 1면 '전장강화 삼성...'서 계속

아울러 센서의 노출시간을 길게 조정해 'LED 플리커(LED Flicker)' 현상도 동시에 완화할 수 있어, LED가 탑재된 전조등, 신호등에서 표현하는 교통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한다.

또 촬영된 이미지의 화질을 높이는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ISP)도 내장해 고객사가 제품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센서사업팀 장덕현 부사장은 "아이소셀 오토4AC'는 오랫동안 축적된 삼성전자의 모바일 이미지센서 기술력에 안정성 높은 자동차용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획기적인 제품이다"이라며, "앞으로 삼성전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카메라뿐 아니라 자율주행, 인캐빈(in-cabin) 카메라 등으로 차량용 이미지센서 라인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이미지센서 중 상당수가 삼성전기에 공급돼 전장용 카메라 모듈도 완성,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기는 최근 북미의 한 전기차 업체와 카메라 모듈 5000억원 규모 수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 모듈 공급도 포함됐다고 전해진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우디 e-트론과 현대



아이오닉5에 장착된 버추얼 사이드 미러. 삼성디스플레이가 공급한다. /현대자동차

차 아이오닉5에 버추얼 사이드 미러를 공급한 상황, 아직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탑재한 차량이 거의 없는 만큼 삼성전자가 디지털 사이드미러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는 셈이다.

앞서 지난 4월 삼성전자는 자동차용 지능형 헤드램프 LED를 출시하며 차량용 LED 사업을 강화한 바 있다. LED 칩 1개 영역을 100로 나눠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한 제품으로, 자동차용 조명 성능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그밖에도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인 엑시노스 오토를 아우디에 공급했으며, 종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디지털 콕핏'으로 완성차 업체를 공략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등 럭셔리 차량에 탑재되는 태블릿과 디스플레이 등도 다수 수주하며 전장 사업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